

현장시선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

데이터 기반 관광 혁신, 나우다가 답하다

제주는 늘 대한민국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먼저 보여준 지역이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독창적인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국내 대표 관광지로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관광은 유명장소 방문을 넘어 지역의 문화와 이야기를 경험·공유하는 '경험 중심 산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는 여행 만족도를 높여 재방문을 유도하는 관광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공공행정 역시 과학적인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에 제주관광공사는 관광객 방문 추이와 소비패턴 데이터를 정책이 신속히 반영하고, 이를 실용적인 공공 가치로 깨어나는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실질적인 상생을 이끄는 데이터 행정 혁신의 중심이 바로 '나우다'이다. 나우다는 관광과 문화, 기술을 하나로 연결하는 제주도 공식 디지털 멤버십 플랫폼이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나우다를 통해 관광객에게는 편리한 혜택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계에는 고객 접점과 안정적인 수요를 마련하며, 지역 사회에는 소비와 활력을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나우다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는

'연결'이다. 관광객의 관심사와 여행 패턴에 맞춰 제주만의 문화와 지역 콘텐츠를 발견하도록 지원, 다채로운 제주를 경험하게 한다. 또한, 관광사업자는 새로운 고객과 소통할 기회를 얻고, 지역경제는 관광 소비 확대를 통해 활력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나우다는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으로 나아가고 있다. 나우다의 가능성은 관광 할인 플랫폼에 머물지 않는다. 관광객의 이동과 소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과 관광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미래형 플랫폼으로 발전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이는 관광객 편의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까지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모델로 평가된다. 아울러 나우다를 필두로 축적되

는 데이터는 내부 행정 효율화를 넘어, 소상공인들의 실물 경기 분석과 맞춤형 마케팅 수립을 돕는 지역 상생 모델로도 작동한다. 이는 곧 나우다를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실현, 지역 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 제주는 지금 관광·문화·기술이 융합된 미래 관광도시로 진화하고 있으며, 나우다는 이를 현실로 구현하는 대표 사례다. 관광은 이제 사람들이 잠시 머물게 하는 산업을 넘어, 지역을 연결하고 문화를 경험하게 하며 기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제주가 만들어가는 나우다의 도전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실험으로, 대한민국 관광산업이 나아가야 할 선도적 모델을 꿈꾸고 있다.

사설

위법·혈세낭비 청다오 항로... 오 도정 과오

그동안 술한 논란을 빚어왔던 제주~청다오 항로 개설이 위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손실보전금 지급 조건으로 맺은 항로 개설 협정이 중앙투자심사 대상인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최근 제주~청다오 신규항로 개설 협정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제주도에 회신했다. 제주도는 컨테이너 화물선을 3년간 운항 계약을 맺으면서 손익분기점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최대 225억원의 손실을 중국 선사에게 보전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신규투자 200억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도는 항로개설에 따른 협약 체결과 재정 지원 근거가 조례에 있고 도의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행안

부는 지난 1월 투자심사 대상이라고 통보했고, 법제처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신규 항로 개설 협정은 '예산 외 의무부담'으로 투자심사 대상이라는 것이다. 청다오 항로는 개설되기 이전부터 많은 논란을 낳았다. 수출입의 기본인 물동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손실을 계속 보전해야 해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정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적인 절차 이행을 간과해 위법적인 협정을 맺은 과오를 범했다. 이로 인해 행안부의 재정지원 배제와 보통고부세 감액 등 패널티를 받게 됐다. 오영훈 도정은 혈세 낭비와 재정 불이익에 대한 책임임을 통감하고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제 공은 민선 9기 도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계약 파기 시 법적 문제와 함께 외교문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행안

그래픽 뉴스

오바마 핵합의·트럼프 이란 재건 계획 비교

Table comparing Obama's nuclear deal and Trump's Iran reconstruction plan. Columns include 'Obama Nuclear Deal' and 'Trump Iran Reconstruction Plan' with details on dates, goals, and outcomes.

사랑하는 이에게

아기를 위한 기도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기적 같은 귀한 선물 감사드리며, 주님의 신성한 복을 간구하오니 주님의 손길 아기에게 내려주소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작은 몸에는 힘을 머리에 지혜를, 마음에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기의 삶을 기쁨과 사랑 그리고 주님의 은총 희망의 빛으로 채워주소서.

부모로서 인내와 사랑과 은혜로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이의 희망과 목적이 가득한 미래를 주님과 동행하며 독특한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하도록 도와주세요.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아이를 항상 둘러싸고 있는 주님의 사랑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향한 당신의 계획 선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믿으며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은우 할아버지 이승국>



※한리일보는 고인의 삶을 추억하는 글과 탄생·결혼·임학·졸업 등 삶의 중요한 순간을 담은 이야기를 실고 있습니다. 사연은 한리일보 대표메일(hl@ihalla.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남방큰돌고래 포괄적 보호대책 서둘라

타히티 관광청이 '고래 보호 캠페인'을 시작했다. 지난해 고래 관광 시즌을 맞으면서다. 흑등고래 관찰 규칙 강화, 전문가 동영상 콘텐츠 제작, 문화적 메시지 전달을 핵심으로 담았다.

보트 관찰 시 거리 규제가 더욱 강화됐다. 공인 가이드는 최소 100m, 일반 선박은 300m 거리를 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관찰구역 내에서는 보트 속도 3노트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고래와 평행 이동, 포위·추적 등도 금지했다. 교육 콘텐츠를 강화하고, 공공 랜드뷰 포인트 구축사업도 시작했다.

고래 관광은 195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했다. 회색고래 이동 관찰이 인기를 끌면서 전 세계로 확산됐다. 2008년에는 119개국에서 1300만명이 참여, 21억 달러 이상의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추산

된다. 환경을 대신한다는 긍정 측면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영향도 적잖다. 서식지를 파괴하거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고래의 행동, 이동 패턴, 번식 주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주라고 예외는 아니다. 남방큰돌고래가 출몰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박 관광이 늘면서 생태를 위협하고 있다. 가까이 접근하거나 무리를 따라가기도 한다.

지난 2023년 4월 개정된 해양생태계법도 무용지물이다. 50m 이내로 선박 접근을 금지하고, 50~300m에서는 스크루를 정지토록 했지만 현장에선 무시되기 일쑤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과 더불어 지도·단속에 손을 놓은 결과다. 도민 공감대 확산과 함께 효과적이면서도 포괄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한리일보 제주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편집인 김한욱 편집국장 고대로.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자본 감소 및 주권 제출 공고. 본 회사는 2026. 6. 11.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 620,000,000원을 금 320,000,000원으로 감소하기로 하고, 그 방법으로 총회일 현재 주주들 소유 주식 중 48.388%에 해당하는 주식을 유상 매수하여 소각하고, 발행주식 총수 62,000주를 32,000주로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리일보 광고문의 750-2828,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개장신고서 무료 작성 대행. 장례지도사 강봉호 010-5254-6661

해산 및 채권제출공고(1차). 당 법인은 2026년 5월 31일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로 해산하기로 결의하고 2026년 5월 31일자로 해산등기를 완료하였으니 당 법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